

선학원, 원로회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

원로회의가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종단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와 선학원 임원진 초청 간담회를 제안한 가운데, 선학원이 간담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는 지난 14일 의장단 차원에서 선학원 측에 공문을 보내 "7월23일(7월21일 현재) 낮12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와 선학원 이사진 간담회를 갖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지난 17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을 비롯해 원로위원 스님들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법인관리법과 중헌 제9조 3항 폐지"를 주장하며 "별반된 상태에서 결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대화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선학원 측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종단-재단간 갈등의 당사자로서 원로회의의 큰 스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인관리법과 중헌 9조3항을 전제로 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가 제안한 별반 징계의 원상회복 등 합의안 거부, 총무원장 스님의 만남 제안을 거부한 데 이어, 원로회의의 대화 제안마

선학원정상화추진위, 31일까지 대화 지속 입장 상임위원회 회의 통해 향후 대응방안 마련

저 거부하면서 선학원이 사실상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원로회의가 조계종 단일승가 및 화합승가 구현을 강조하며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의 노력과 역할을 당부해왔다는 점에서 선학원 측이 이번 원로회의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선학원 역시 당초 원로회의의 스님들의 제안인 만큼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논의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이 함께 배석하는 점을 이유로 결국 종단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 "선학원의 역사와 정화이념을 존중하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현

종단 집행부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선학원이 원로회의의 제안마저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23일 원로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 스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종단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 유예기간인 오는 31일까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선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학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유예기간 원로 시점이 다가오면서 입장 변화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권리제한 시행 및 선학원과의 대화 지속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상임위원장 지현스님은 "원로 스님들과의 간담회에 선학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간담회를 갖고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선학원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 향후 대응방안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화엄사를 대표해 부주지 해초스님(사진 오른쪽)이 지난 20일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구호기금 2232만원을 전달했다.

화엄사, 네팔 구호기금 전달

아름다운동행 통해 2232만원

제19교구부사 화엄사(주지 영관스님)가 지난 20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네팔 구호기금 2232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화엄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들이 고통 받는 네팔을 잊지 않고 최근까지 십시일반 모금한 것으로 아름다운동

행을 통해 증장기적 복구사업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주지 영관스님을 대신해 참석된 부주지 해초스님은 "본사에서 네팔 구호기금을 모아 보자는 의견을 냈고 말사 스님과 신도들도 함께 도와 기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화엄사 스님과 신도들이 수고 많았을 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94 개혁 비대위' 대중공사 참여 미지수

'의현스님 복권' 의제 변경

본지 사설 관련 사과 전제

오는 29일 제5차 대중공사에서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과 종단개혁'을 의제로 다루기로 한 가운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가 1994년 종단 개혁에 참여했던 스님들과 재가자, 중앙총회위원, 불교계 재가단체 14곳이 참여하고 있는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 등 초청위원에게 대중공사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대중공사 100인 위원회 초청 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추진위원회는 안내문을 통해 "5차 100인 대중공사는 종단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여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중공의에 의해 종단 미래를 다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대중공사 참석과 관심을 당부했다.

또 추진위원회는 94년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 경과와 재심 결정 사유, 재심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 94년 종단개혁의 정신, 종단개혁 20년 성과와 과제 등 대중공사 브

리핑 요지를 안내문과 함께 발송했다.

대중공사 추진위원회의 초청 제안에 대해 종단 개혁 참여 스님 및 재가자들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는 사실상 대중공사 참가 제의를 거절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지난 20일 대표자 회의를 갖고 입장문을 발표, "불교신문 6월24일자 사설에 대한 발행인의 해명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 중헌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의현스님 복권 논의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는 대표자 회의 등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7일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염태규 이경민 기자

'총무원장 부존재' 항소심 기각 종단문제 자율적 해결 인정

장주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등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10일 장주스님이 제기한 소가 "부적합하여 원고(장주스님)의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주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이후부 당시 제출한 '선거인명부확정 각서'와 '선거결과승복 각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는 위 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총무원장 스님은 현직 총무원장으로서 직할교구

의 교구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총무원장 선거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총무원장 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소송과 관련 법원이 종단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 이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종단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며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사회분열에 의존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전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해 범장스님과 지관스님 등 역시 재임기간 동안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시기에 이어진 △지무

집행 정지 가처분 △총무원장 당선 무효 확인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앞으로 종단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종단 소송대리인 김봉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종단내부 선출직에 있어서 종단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종단의 총무원장 선출방식도 존중했다"며 "이와 함께 총무원장 당선시마다 반복되는 소송이 불식될 것으로 보여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주스님은 지난해 4월 재심호결원 제89차 심판부에서 별반의 징계를 받았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여성불자 108인, 꿰어야 보배



하정은 기자의 현장에서

tomato77@ibulgyo.com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화공연장에서 불교여성개발원이 선정한 '여성불자 108인' 선정식이 열렸다. 이날 선정된 여성불자들은 남다른 기쁨에 젖어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꽃다발을 들고 기쁨을 함께 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밝힌 여성불자 108인 선정사업의 목적은 "귀감이 되는 불교 여성 지도자 발굴 및 상호간 네트워크 형성에 이바지하고, 여성전문인의 대사회적 공헌도를 널리 알림으로써 여성불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이 사업을 통해 2003년 1차로 107명, 2차 100명, 3차 106명, 4차부터 6차까지 각각 108명이 선정됐고, 올해 7차로 97명이 최종 선정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불교여성지도자만도 740여명에 달한다. 선정위원회는 조계종 포교부장 승묵스님과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 등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선정

식에서 임완숙 선정위원은 경과보고에서 "선정과정에서 매우 엄격했고, 매우 진지한 선정작업이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정된 여성불자들의 활동과 활동성이다. 불교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야 환영할 일이지만, 불교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포교전문인력으로 재양성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는 듯 하다. 몇몇 전 여성불자 108인으로 선정된 한 여성은 "처음 여성불자 108인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 될까 내심 기대하기도 했는데,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서 아쉬움이 컸다"고 했다.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할 때 경제와 교육연구, 문화예술, 보건의료, 언론출판, 정치행정 등 전문분야로 세분화해서 선정해도,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포교정책에 활용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빗대 말한 한 스님의 말처럼, 이제 불교여성지도자 선정에 그치지 말고 선정된 여성불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총력을 쏟았으면 좋겠다.

2015년도

대정장학재단 장학생선발 안내

- 지원자격
 1. 2015년도 2학기 현재 대학 2학년 혹은 3학년 재학생 (모든 학과 지원가능)
 2. 직전 2개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 평균점수 85점 이상
 3. 가족합산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입액이 15만원 미만인 자 (2014년도 기준)
 4. 2015년도 2학기 유학예정자 지원 불가 (복학예정자는 지원 가능)
 5. 타 기관 장학금 수혜자도 지원 가능
- 장학금 혜택 및 선발인원
 1. 장 학 금 : 연간 500만원
 2. 선발인원 : 5명 내외
 3. 지원기간 : 심사 후 출결 시기까지
- 선발전형 : 서류심사 후 면접
- 구비서류(필수 제출서류)
 1. 장학생선발 지원서(지원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1부
 2.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1부
 3. 성적증명서(직전 2개학기 분) ...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4년도 분)
 -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양쪽 다 제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동사무소 팩스민원 가능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불교사회단체 발급)
 7. 교수추천서 (자유 양식)
- 접수기간 : 2015년 7월 20일 ~ 7월 31일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면접 :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 예정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접수처 및 문의
133-821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6, 동성빌딩 5층 재단법인 대정장학재단
재단사무실_ 02-3408-1712
담당자_ 010-3441-8380
홈페이지_ www.daejungaf.com

반야심경 전통부채 (실크천, 오죽선)

선물용·대량주문 문의 환영!!

<실크천 부채>

<오죽선 부채>



템플스테이 선물용 부채 제작전문

<전통부채 구성>

실크천 부채	한문 반야심경	22cm x 30살대
오죽선 부채	한글 반야심경	25cm x 25살대

가격 : 3,500원 (케이스, 매듭 포함)
*10개 미만은 택배비 2,500원 별도



<접은상태 및 케이스>